



# 실존과 문학의 상관

자유기고가 김춘겸

실존철학(實存哲學 : Existenzphilosophie)이란 19세기의 합리주의적 관념론 및 실증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나, 주체적 존재로서 실존을 중심개념으로 하는 철학적 입장을 말한다. 실존의 개념은 꼬집어서 정의될 수 없고 오직 구체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각자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이 개념의 특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실존철학자들이 말한 바를 종합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실존(Existenz : existence)은 우선 인간 외의 사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실존은 언제나 제1인칭(第一人稱)이요, 나 자신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도 객관으로 단들어 버릴 수 없는 것이 그특징이다. 나(自我)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각각 실존하는 한에 있어서는 저마다 1인칭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실존은 종래의 철학에서 사용되어 온 의미에서의 주체와는 다르다. 거기서 정신·이성·의식 또는 인격으로서 인간의 주체성을 파악했을 때에 이러한 규정은 모두 인간을 실체(實體)로서 정립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실존은 예로부터 실체(Substanz : substance)와 구분되고 대립되는 개념을 이루었다. 그래서 어떠한 사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기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있는가를 문제삼을 때에 사용되는 말

이었다. 즉 <인간은 실존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가 무엇인가(Was : what)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Wie : how) 존재하는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실존철학이 어떠한 철학자가 무엇을 논하고 있는가 하는 점보다 차라리 그가 어떻게 존재하며 또 그의 사상이 그 자신의 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얽혀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의 가장 큰 척도(尺度)는 내면적인 성실성 또는 본래성(本來性)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실존하는 인간은 특별히 <자각적 존재>라고 불리어진다.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은 단순한 자아 의식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실존은 <자기 자신에게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게는 그의 밖에 있는 모든 사물이나 세계는 그와는 무관하며 대수로운 문제가 못된다는 것이다.

오직 본래적으로 제 자신이 되는 것만이 중심적 관심거리이다. 이와같은 실존의 근본적인 의미는 야스퍼스나 하이데거의 경우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선택과 결단>을 통하여 자아를 형성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 밑바닥에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자유존재로 보



는 사상에 놓여있게 된다.

실존(實存)은 관념이나 인식(認識)에 의한 허상(虛像)과는 상관없이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다. 또는 불변적 존재인 본질(本質)에 대응하여 가능성적 존재이다. 그리고 신(神)이나 초월자가 본질이라면 인간 개개의 존재는 실존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실존은 인식의 주체자로서의 자아(自我)인 '나'이다.

사실상 실존은 그의 모든 구체적이고 개별적 존재로서의 유한성(有限性: finitude)에도 불구하고 미처 헤아리기 어려울만큼 한없이 자유로운 가능 존재이다. 이 자유는 실존철학자에 따라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약간씩 다르다. 사르트르의 경우에는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까지 확대되어 있다.

키에르케고르를 위시한 다른 철학자들에 있어서는 자유와 필연은 서로 제한하며 모순된 채 실존을 구성하는 불가분의 두 계기(契機)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누구나 인간은 자기형성의 가능성을 최대한도로 개방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한다.

예컨대, 사르트르와는 달리 인간의 자유는 존재의 운명에 의하여 미리부터 능가되어 있다고 보는 하이데거도 현실보다는 가능성의 공간이 훨씬 크다고 하였다. 그래서 인간은 <많은 가능성 가운데서 약동하는>, 본질적으로 <거리를 취하는 존재>라고 역설하였다.

여기서 거리를 취한다는 것은 이미 키에르케고르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태도를 취하는 것>과 동일한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또한 초월(超越: transcendence)이라고도 불리어지고 있다. 경험이나 인식의 범위 밖에 뛰어나 있는 것이다.

즉 실존은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으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초월하여 그와 관계를 맺는다.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이와 같이 경험이나 인식의 범위 밖에 떨어져 있는 이러한 초월의 방향은 때로 신(神)이기도 하며, 초월자이기도 하며 때로는 존재의 진리이기도 하다.

실존주의는 20세기 전반기에 주로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사조의 한 가지이다. 실증주의나 합리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되어, 사물이나 인간에 관한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본질을 부정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실존을 믿고 이를 다룬다. 문학·종교·사상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야스퍼스·키에르케고르·니체·사르트르·포이어바흐 등이 그 대표적인 철학자들이다.

부조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면서, 실존주의 철학을 수용한 문학이 이른바 실존주의 문학이다. 20세기 중엽 유럽 문학의 온갖 장르에 골고루 영향을 끼쳤다. 카프카의 《심판》과 《성》, 사르트르의 소설 《구토》와 희곡 《파리》,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 이오네스코의 부조리극(劇) 《대머리 여가수》 및 카뮈(A. Camus 1913-1960)의 부조리 소설 《이방인》과 《페스트》 따위가 그 대표작들이다. **표준**